줘가며 생활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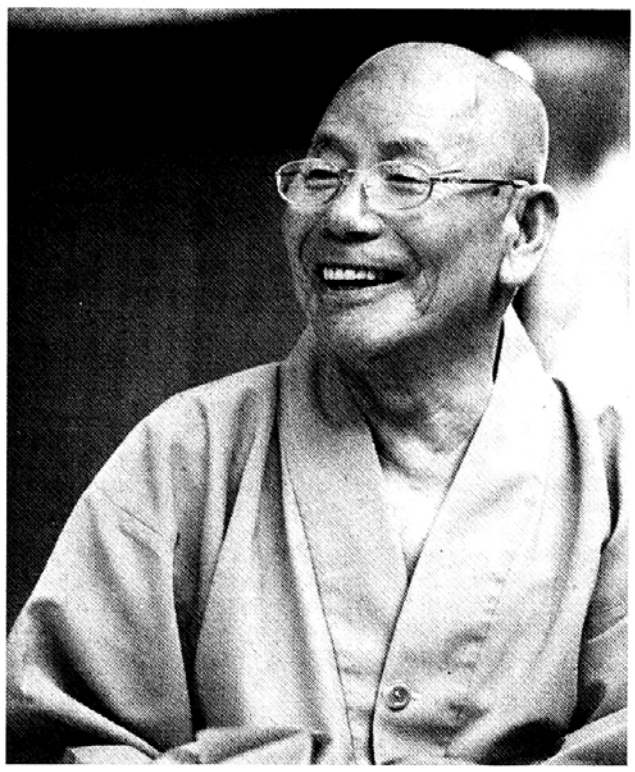
큰스님

(양산 용주사 주석)

수국과 법당으로 오르는 계단에 가
련히 놓인 화분의 꽃들이 눈길을 끈
또한 용주사 주련, 현판 등이 모두
님의 솜씨다. 통도사에서 구하스님
배운 붓글씨 솜씨를 발휘한 것이다.
3년 전부터 절 살림을 신도들에게
긴 이후 "독경하고 참선하는 일외에
다른 일이 없다"는 스님이지만 어
서든 법문을 청하면 마다하지 않는
〈업경대〉 〈반야심경강설〉 등의 저

도소 법보시…포교힘써

를 교도소에 법보시하며 교도소나
소년 보호시설 등의 포교에 각별한
심을 기울이고 있다. 용주사를 둘러
수령 칠십이 넘은 소나무와 벗이 되
절에 살고 있는 두꺼비에게는 밥까
줄 정도로 친분이 두터운 스님은 사
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을 법문을
해 전하며 전법도생의 길을 묵묵히
고 있는 것이다.



◇수도스님은 자신의 책을 법보시 하는 등 교도소나 청소년 보호시설 등의 포교에도 정성을 쏟고 있다.

일상생활이 佛法실천의 場

별없이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회때마다 경전의 뜻을 법문에 풀어서 들려주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법회 때마다 스님이 들려주는 예화가 곁들여진 경전풀이를 통해 있는데 들은 삶의 지혜를 발견하고 생활의 상때문에 를 경험했다. 신도들이 못알아 듣는 님 탓만… 은 아무리 그 내용이 깊어도 아무 이 없다고 생각하는 스님은 한마디 해도 신도들이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 는 것을 불제자의 의무라고 여기고 . 전법도생의 길, 그것이 스님이 생 는 수행자의 길이자 의무이다. 불교를 믿되 바른 불자가 드 세요. 말은 불자라고 하면서도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고 실천하는 이들은 드물다는 말입니다. 부처님은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자상하게 일러 놓았어요. 밥을 먹을 때도, 걸음을 걸을 때도 바로 하라 했어요. 물건을 쥘 때도 가만히 쥐고 가만히 놓을 것이며 음식을 먹고 마셔도 조용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만큼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살피고 고요히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사람들 생활을 가만히 보면 밥 먹는 것 하나만 봐도 조금만 맛있는 것을 보면 탐심을 일으키며 '후루룩 쩝쩝' 소리를 내면서 먹어요. 지금 자신의 사소한 행동 하나만 살펴봐도 내가 진정한 불자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어요. 크고 거창한 기준이 있는게 아니라 일상생활이 전부 부처님법이요 실천의 장이라는 말입니다."

생활 실천을 강조하시는 스님이지만 그렇다고 법회를 소홀히 하는 것은 엄하게 꾸짖는다. 언제나 자상하고 온화한 스님도 법회에 오다가 말다가 하는 신도를 보면 따끔하게 충고한다. 법회에 두세번 빠진 보살이 저만치 걸어오면 스님은 더욱 반갑게 그 보살에게 다가가 "아이구, 보살님! 십년 만에 오신 것 같습니다."하고 인사를 건넨다. 스님의 꾸지람은 이와 같다. 호통을 치는 법도 없고 싫은 소리를 하지도 않는다. 스님의 웃음 섞인 말씀은 오히려 마음 깊은 곳을 울려주는 경책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퍼런 칼을 들고 가로막는다 해도 법회에 가겠다는 간절한 신심과 열정으로 공부하라고 늘 강조하는 스님. 그런 신심이 있다면 칼을 들고 법회에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과 같은 장애는 저절로 없어진다는 것이다.

스님은 용주사를 창건해 지금껏 신도들을 이끌어온 삶이 열정과 신심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 회고했다. "도둑질 빼고는 안한 것이 없을 정도"라는 스님의 우스개 소리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다. 실제로 스님은 절 불사 틈틈히 텃밭에 야채를 길러 시장에 내다파는 일은 물론 탁발도 마다하지 않았다. 절 불사에만 전념했다면 그렇게 까지는 하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부산 동래에 있었던 고아원인 새들원의 원생 5명과 결연해 3년 동안 보살피게 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절 형편이 더욱 어려워졌다.

"미국의 원조가 끊겼다고 우리의 아이들을 길거리로 내몰 수는 없잖아요. 우리마저 외면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니 그냥 있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남자 아이 4명, 여자 아이 1명을 후원하겠다고 서명을 했지. 나중에 알고 보니 단일 사찰로서는 부산에서 내가 가장 많은 아이들을 후원했어요. 범어사가 2명을 후원했으니 내가 얼마나 힘에 버거운 일을 벌인 건지 짐작이 될 겁니다. 그러나 두 마음을 먹으면 안되잖아요. 그대로 밀고 나가기로 결심을 했죠. 그러고 나니 당장 매월 들어가는 후원금도 마련해야지, 입학하면 입학선물이라도 해줘야지, 또 겨울 되면 옷이라도 사 줘야지, 제대로 부모노릇 하기가 쉽지가 않더군요. 그러나 찾아가면 멀리서 나를 알아보고 달려와 내 다리를 부여 안으며 아버지하고 부르며 매달리는데 참 기가 차고, 힘들다고 그만 둘 수가 없대요."

이렇게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며 스님은 절 텃밭에서 야채를 키우고 다듬어 등짐을 지고 동래시장까지 꼬박 하루를 걸어 야채를 팔러 나가기도 했다. 부지런히 걸어도 꼬박 하룻길이었던 동래시장까지 걸어다녔던 스님의 걸음걸음이 아이들을 위한 스님의 기도였던 셈이다. 지금도 결연 당시 받았던 아이들의 서류와 빛 바랜 흑백사진을 간직하고 있다. 사진을 보여주시며 "특별히 나한테는 예쁜 자식들만 인연이 되었다"며 부모가 자식 자랑하듯 이야기를 이어갔다. 스님은 지금도 종종 서류와 사진을 들어다 보며 이제 나이 서른을 훌쩍 넘겼을 그 당시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든 잘 살아가길 기도한다.

이어 스님은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버티게 한 힘은 결국 부처님께 잘 보이려고 했던 한마음뿐이었다"**며 빙긋 웃었다. "행자시절에 힘들게 지내면서도 부처님께서 나를 야단하시지나 않을까 하고 스스로를 잘 단속하며 지내왔던 게 버릇이 된 셈이지요. 법당 청소할때도 조그마한 먼지만 있어도 아이구, 부처님이 나를 야단하시겠구나 하고 스스로 부처님의 마음이 되어 나를 살피게 되더라구. 그러니 아이들 보살핀 것도 부처님이 나를 야단치지 않도록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한 거고, 내 일생의 모든 행동은 모두 부처님께 잘 보이려고 한 것이지. 부처님의 마음으로 나를 단속하니 부처님을 닮아가게 되더군요. 여러 불자님들도 스스로의 마음안에 부처님을 모시고 스스의 마음과 행을 마음안에 계시는 부처님께 비추어가면서 생활에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정운스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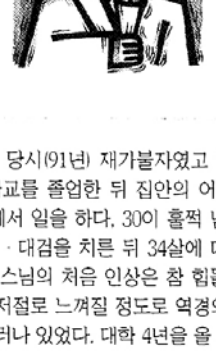
스 님 이 야 기

설송스님

황금과 백옥만이 귀한 줄을 알지 마소 / 가사 옷 얻어입기 무엇보다 어려워라 / 이 몸을 알고 보면 서천축 스님인데 / 무엇을 반연하여 제왕가(帝王家)에 떨어졌나 / 십팔년 지나간 일 자유라곤 없었도다 / 내 이제 손을 털고 산속으로 돌아가네

위 시는 순치황제 출가시의 일부다. 중국 명나라 말, 여진족의 누루하치가 청나라를 세우고 자신을 청태조라 칭했다. 삼대 왕 세조는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중국 전역을 통일했다. 이 세조(호:순치)가 위의 출가시 주인공인데 재위기간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전쟁터에 살면서도 선(禪)에 관심이 깊었다. 결국 진리를 구하고자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였다. 나는 이 출가시를 불교대학 강의 때마다 수업시간 전 학생들과 함께 독송할 정도로 좋아한다. 이 시를 독송할 때마다 오버랩되는 스님이 있다.

비구 설송스님이다. 스님은 동국대에서는 1



년 선배로 당시(91년) 재가불자였고 만학도였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집안의 어려움으로 생활전선에서 일을 하다, 30이 훌쩍 넘어 검정고시, 고검 · 대검을 치른 뒤 34살에 대학에 입학하였다. 스님의 처음 인상은 참 힘들게 살아왔구나가 저절로 느껴질 정도로 역경의 세월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다. 대학 4년을 올 장학금으로 졸업하는 동시에 출가를 했다. 출가후 은사 스님의 배려로 대학원에 적을 두었는데, 학문에 대한 열정이 보통 아니었다. 스님은 어학실력을 갖춘 뒤 일본 용곡대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1년간 유학도 다녀왔다.

스님의 학문에 대한 지견을 알고 있던 터라, 언젠가 "스님은 敎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할 것"이라고 하니 스님은 "처음 출가는 敎로부터 발심하였으나 교는 이제 접어두고, 내 일생일대의 목숨을 걸어놓고 참선으로 재출가할 겁니다" 하였다. 일반적으로 학승에게 문제점은 교에 대한 집착없이 수행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교에 천착한다는 점이다. 스님의 확고한 참선정진에 대한 결심을 듣고도 설송스님이 '敎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할 것'이라는 고정된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

스님은 대학원을 졸업한 뒤, 남방의 위빠사나 선을 하겠다면서 석사논문도 '사마타-위빠사나(止觀)에 대한 연구'를 썼다. 그러던 스님이 마음이 변한 모양이었다. "한국스님으로서 현 한국선방에서 지향하는 간화선 수행을 해보지 않고 남방불교 수행을 한다면 뿌리를 잃어버린 것 같아 한국에서 몇 년 안거를 성만하고 남방선을 해야겠다"고 하였다. 그러더니 몇 년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안거에 들어갔다. 해제 때도 산철결제에 들어가 정진하는가 하면, 어느 산철에는 기도정진하기도 하였다. 안거 3철정도를 마쳤을 무렵 인사동에서 스님을 만났다. 스님은 너무도 행복해 보였다. 환희심으로 가득한 얼굴이었다.

스님은 "선방에서 정진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소? 조금만 더 일찍 불법을 만났더라면 좋았을 걸… 어쨌든 남들보다 늦게 출가했으니 배를 들여 수행해야 겠지요. 내가 무슨 복에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지, 부처님 은덕이 참으로 지중합니다." 스님의 이 말을 듣고 참으로 내 자신이 왜소함을 실감하였다. 나는 조금 이른 나이에 출가한 탓인지 초발심의 정진이 희석되어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늦깎이' 지만 쉼없이 수행정진

현재 미얀마서 위빠사나 전념

불가에서 늦은 나이에 출가하는 것을 '늦깎이'라 한다. 늦깎이란 말은 세속에서 살아온 습에 너무 푹 젖어 쉽게 중물이 들지않는 경우를 지칭하지만, 늦게 출가해 열심히 정진하는 스님도 많다. 구산스님, 효봉스님이 대표적인 경우다. 효봉스님은 38세 늦은 나이에 출가해 쉼없이 좌복에 앉아 정진했는데 어찌나 열심히 했는지 엉덩이가 짓물러 진물이 흐르는 것도 모르고 참선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설송스님은 출가도 늦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일념으로 정진하는 올곧은 수행자로서 저 앞서서 나아가고 있었다.

스님은 지금 미얀마에서 위빠사나 수행에 전념하고 있다.

승가의 살림살이가 비구스님들에게 기울어져 있는 종단 현실이고, 출가자나 재가자 모두 차별성을 인식하지만 균형을 찾기란 쉽지 않다. 나 또한 세속의 바람때문인지 페미니즘 사상이 강한 편이다. 출가년수가 높아질수록 '법랍'이라는 훈장을 가슴에 달고 출가승이라는 상(相)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이럴 때 출가본연의 자세로 되돌아가 일대사 인연(一大事 因緣)을 해결하겠다고 사기충천했던 출가했을 당시를 되새기는 떠올려 본다.

▩서울 니련선하원 한주

CHAMP 인간 승리자들의 모임 챔프그룹

참향 참나무 류창열 목초액 木酢



心性矯正研究家
방송인, 사회사업가, 환경보존연구가

방송출연
•인천방송(iTV) "드전건강백세" 36회방영
•e채널 (정보통신) 케이블TV
"전자상거래와 네트웍 마케팅과의 만남"
•ch26 케이블TV "건강특집" 44회방영
•MBN 매경TV ch20
"OK 한방스케쉴-사람 살리는 목초액"
방송출연중
•MBN 매경TV ch20 "류창열의 건강특강"
•이벤트방송 "류창열의 삶 맛 나는 세상"
•저서: "심뵤를 고쳐야 病이 낫지" 外다수
저자 건강특강 - 청강무료
•월~목:14시~16시(13시 45분까지 입장)

柳 昌 烈

매스컴이 격찬한 목초액의 신비!
• KBS다큐멘터리(1997년 11월) ····· 목초액 효능, 효과 및 연구과정
• MBC, SBS, CJB뉴스(1999년 5월) ····· 식용목초액 항암, 당뇨병 치료 효과
• MBN매경TV ch20(2002년 2월 11/12일 2회방영) ····· 사람 살리는 목초액
• KBS다큐멘터리(2000년 6월) ····· 참나무도 자원이다

무점포 SOHO 지사장 모집안내
전업자, 퇴직자, 남여노소 구분없이 지역사회 인맥, 신용, 덕망있는 자로 소자본으로 누구든 환경을 살리면서 손쉽게 평생사업을 할 수 있음.
지사 : •제주(064)726-3213 •정읍(063)532-8210
•전주(063)285-7258, (063)244-8901

CHAMP 한국 농·중·소(주) CGN Co., Ltd | www.champgroup.co.kr (02)516-8939 (080)595-2929

사단법인 코베트 : 코리아 · 베트남혼혈아 : 자립, 양자녀, 장학, 취업

특별할인행사(선착순 99명) : 목초식첨용1ℓ ~~₩495,000~~ ⇨ ₩297,000

자연과 환경을 살리는 목초액의 신비!!



류창열 참나무목초액은 참나무를 열분해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참나무의 200여가지의 성분이 연기로 변할때 급냉하여 액화시켜 숙성후 산업용, 임업용, 농업용, 축산업, 생활용으로 정제하고, 식첨용은 고도의 첨단 정밀, 정제기술에 의해 투명하게 만든다. 특히 식첨용은 오래 두어도 색깔이 투명성을 유지하여야만 고순도 및 고기능, 완전 무해한 식첨용으로서 강력보습효과, 강력천연방부제, 강력탈취, 강력해독, 강력살균 및 멸균, 강력항산화력등에 의해 광물, 미생물, 식물, 동물을 自然으로 회생시키고 세포를 공명, 공진시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인체의 항상성기능을 강화시키므로 인체 스스로 젊음과 건강을 유지시켜준다.

참나무 목초액을 이용한 생산제품
•식첨용 :1ℓ, 150㎖, 40㎖ •생활용:1ℓ, 150㎖, 40㎖
목초 고기능비누, 발시트, 고기능스킨, 고기능로션, 고기능크림, 고기능바디샴푸, 고기능바디크렌져, 고기능발크림, 고기능치약, 수질개선 주방세제(주방식기, 세탁용)
9월 출시예정 목초 자매품
목초겸, 사탕, 우리밀과자류, 우리밀빵류, 라면, 우동, 냉면, 칼국수, 김치, 된장, 간장, 젓갈